

이와노히메 전승에 관한 고찰

— 『古事記』의 이와노히메像에 대하여 —

박 미 경*

目 次

1. 머리말
 2. 상대문헌이 전하는 이와노히메
 3. 이와노히메像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 4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 전승과 이와노히메像
 5. 맺음말
-
-

1. 머리말

제16대 닌토쿠(仁德) 천황의 황후 이와노히메¹⁾는 가즈라기노소츠히코(葛城之曾都毘古)의 딸이자, 리츄(履中)천황, 한제(反正)천황, 인교(允恭)천황의 어머니로 일컬어지고 있으며, 『古事記』 『日本書紀』 『万葉集』가 모두 이 이와노히메를 주인공으로 하는 전승을 전한다. 그러나 이들이 전하는 이와노히메 전승 간에는 세부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점이 확인되는 등, 上代の 문헌들이 전하는 이와노히메像은 일정하지 않다. 예를 들어 『古事記』 『日本書紀』가 전하는 이와노히메는 질투심 많은 황후로 등장하는데 반해, 『万葉集』에 보이는 이와노히메는 그녀가 남긴 노래가 천황을 향한 애절한 사랑을 읊은 노래로 이해되면서 오로지 천황의 사랑만을 기대하고 의지하는 연약한 여성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 때문에 지금까지 이와노히메는 종종 『古事記』 『日本書紀』가 전하는 이와노히메와 『万葉集』가 전하는 이와노히메로 나뉘어서 논해져 왔을 뿐 『古

* 대전대학교 동양문화연구소 연구교수.

1) 磐之媛命(『日本書紀』), 石之日賣(『古事記』), 磐姫(『万葉集』)

事記』와 『日本書紀』가 전하는 이와노히메象에 보이는 차이점에 대해서는 그다지 논해지고 있지 않다. 이와 같은 연구 현황은 『古事記』와 『日本書紀』를 일괄하여 「記紀」라 불렀을 정도로 두 작품을 하나로 거의 동일시해 온 연구사의 흐름으로 보아 어찌면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古事記』와 『日本書紀』가 각각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갖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이와노히메 전승에 대한 검토는 필수적이며 그 의미도 크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古事記』 『日本書紀』가 전하는 두 개의 이와노히메象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를 통해 『古事記』의 이와노히메가 어떻게 그려져 있으며 그것이 「記紀」로서가 아니라 『古事記』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한 문제를 보다 입체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2. 上代文獻이 전하는 이와노히메

이와노히메에 관한 전승은 서두에서도 언급한 것과 같이 『古事記』 『日本書紀』 『万葉集』에 모두 전해지는데 먼저 이들 문헌들이 전하는 이와노히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古事記』 닌토쿠천황조에 보이는 이와노히메의 모습을 쫓아 보면 다음과 같다.

①이 천황이 가즈라기노소츠히코의 딸, 이와노히메노미코토를 얻어 낳은 자녀는 오오에노이자호와케노미코토. 다음에 스미노에노나카즈미코, 다음에 다지히노미즈하와케노미코토. 다음에 오아사츠마와쿠고노스쿠네노미코토.<중략> 이 천황 치세에 황후 이와노히메를 미나시로로 가즈라기베를 정하고(此の天皇、葛城之曾都毘古が女、石之日壳命を娶りて、生みし御子は、大江之伊耶本和氣命。次に、墨江之中津王。次に蝮之水齒別命。次に男浅津間若子宿禰命。<中略>此の天皇の御世に、大后石之日壳命の御名代と為て、葛城部を定め、(后妃・御子と御名代)

②그 황후 이와노히메노미코토는 질투가 몹시 심했다. 그래서 천황이 거느리던 후궁들은 궁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다. 후궁들이 무슨 말이라도 하면 황후는 발을 동동 구르며 질투를 했다. 그런데 천황이 기비의 아마베노아타이의 딸로 이름은 구로히메라는 아가씨의 용모가 아름답다는 소문을 들으시고 궁으로 불러들여 시중을 들게 하였다. 그러나 구로히메는 황후의 질투를 두려워하여 본고장으로 달아나버렸다. 천황이 높은 곳에 올라 구로히메가 탄 배가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보고 노래하기를<중략> 이에 황후는 그 노래를 듣고 매우 노하여 나니와로 사람을 보내어 구로히메를 배에서 끌어내려 육로를 걸려서 쫓아 보냈다. (其の大后石之日壳命は、嫉妬すること甚多し。故、天皇の使へる妾は、宮の中を臨むこと得ず。言立つれば、足もあがかに嫉妬しき。爾くて、天皇、吉備の海部値が女、名は黒日壳、其の容姿端正と聞こし看して、喚し上げて使ひき。然れども、其の大后の嫉むを畏みて、本つ國に逃げ下りき。天皇、高き台に

坐して、その黒日売が船の出でて海に浮べるを望みて瞻て、歌ひて<中略> 故、大后、是の御歌を聞きて、大きに忿りて、人を大浦に遣し、追ひ下して歩より追ひ去りき。(吉備の黒日売と皇后の嫉妬)

③그 말을 듣고 황후는 몹시 원망하고 화를 내며, 배에 싣고 있던 미즈나가시와를 모두 바다에 던져 버리고 말았다. <중략>그리고 다카츠궁으로 돌아가지 않으시고 그 배를 끌고 나니와의 호리에를 지나 강을 따라 야마시로로 올라가셨다.(是に、大后、大きに恨み怒りて、其の御船に載せたる御綱柏をば、悉く海に投げ棄てき。<中略>即ち宮に入り坐さずして、其の御船を引き避りて、堀江に浜り、河の隨に山代に上り幸しき。(八田若郎女と皇后の嫉妬))

④메토리노오오키미는 하야부사와케노미코에게 말하기를 「황후가 강해서 천황은 야타노와카이라츠메를 제대로 맞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천황을 모시지 않을 생각입니다. 저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바로 결혼하였다. <중략> 황후 이와노히메노미코토는 친히 술잔을 들어 각 씨족의 여자들에게 주셨다. 그런데 황후는 그 옥팔찌를 알고 있어서 오오다테노무라지의 아내에게는 술잔을 주지 않고 즉시 물러가게 하셨다. 그 남편 오오다테노무라지를 불러 말씀하시길 「천황은 메토리노오오키미들을 불경함으로 인해 물리치셨다. 이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자기 주인이 손에 하고 있던 옥팔찌를 막 죽어 아직 살갓도 따뜻할 때에 빼앗아 제 아내에게 주다니」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사형에 처하셨다.(女鳥王、速総別王に語りて曰はく、「大后の強きに因りて、八田若郎女を治め賜はず。故、仕へ奉らじと思ふ。吾は、汝命の妻と為らむ」といひて、即ち相婚ひき。<중략>大后石之日売命自ら大御酒の柏を取りて、諸の氏々の女等に賜ひき。爾くて、大后、其の玉鈕を見知りて、御酒の柏を賜はずして、乃ち引き退けき。其の夫大楯連を召し出して、詔はく、「其の王等、礼無きに因りて、退け賜ひつ。是は、異しき事無けくのみ。夫の奴や、己が君の御手に纏ける玉鈕を、膚も熅けきに剥ぎ持ち来て、即ち己が妻に与へつ」とのりたまひて、乃ち死刑を給ひき。(速総別王と女鳥王))

『古事記』에 처음으로 이와노히메의 모습이 등장하는 것은 닌토쿠 즉위에 이어지는 ①의 계보부로, 이와노히메가 가즈라기노소츠히코(葛城之曾都毘古)의 딸이자 리츄(履中)천황, 한제(反正)천황, 인교(允恭)천황의 어머니로 전해지고 있다.

②는 높은 산에 올라 온나라를 두루 살펴보다가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오르지 않을 정도로 가난한 나라의 현실을 인식하게 된 닌토쿠가, 가난한 백성을 위해 그로부터 3년간 모든 조세와 부역을 면제할 것을 명하고 스스로도 그동안 비가 새는 궁궐을 보수조차 하지 않으며 백성들을 풍요롭게 한 성군이였다는 기록에 이어지는 구로히메 이야기이다. 성군 닌토쿠가 후궁조차 들이지 못할 정도로 그의 황후 이와노히메의 질투가 극심했지만 어느 날 아름답기로 유명한 구로히메의 소문을 들은 닌토쿠는 그녀를 궁궐로 들인다. 하지만 이와노히메의 질투를 두려워한 구로히메는 결국 고향으로 달아나는데 그 때 닌토쿠는 구로히메를 향한 자신의 마음을 노래한다. 이 구로히메 관련 이야기는 『日本書紀』에는 전해지지 않는데 『古事記』는 천황의 노래를 들은 이와노히메가 화

가 나서 구로히메를 배에서 끌어내려 육로로 걸어가게 했을 정도로 그녀의 질투가 대단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③은 닌토쿠의 또 다른 후궁 야타노와카이라츠메(八田若郎女)를 중심으로 한 이야기이다. 닌토쿠는 이와노히메가 주연(酒宴)을 베풀 준비를 하기 위해 기노쿠니(紀伊國)에 가고 없는 부재중을 틈타 야타노와카이라츠메와 결혼을 한다. 이 사실을 전해 듣고 화가 난 이와노히메는 궁으로 돌아오지 않고 야마시로(山代)로 가 틀어박히게 된다.

이에 닌토쿠는 도리아마와 구치코노오미 등을 使者로 파견하고 급기야 천황 스스로도 츠츠키노미야로 찾아가 이와노히메의 환궁을 종용한다. 그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인지 어떤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을 『古事記』가 남기지 않고 있어서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인용 ④에 보는 바와 같이 이와노히메는 메토리노오오키미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하여 오오다테노무라지를 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닌토쿠와 황후 이와노히메의 화해가 이루어져 환궁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日本書紀』가 전하는 이와노히메에 관한 기록을 앞서 본 『古事記』의 기사와 비교하며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①2년 봄 3월 辛未朔 戊寅(8일), 이와노히메노미코토를 황후로 삼았다. 황후는 오오에노이자와호와케노스메라미코토, 스미노에노나카츠미코, 미즈하와케노스메라미코토, 오아사츠마와쿠고노스쿠네노미코토를 낳으셨다. (二年の春三月の辛未の朔にして戊寅に、磐之媛命を立てて皇后としたまふ。后、大兄去来穂別天皇·住吉仲皇子·瑞齒別天皇·雄朝津間稚子宿禰天皇を生みたまふ。)

②16년 가을 7월 戊寅朔(1일)에 천황은 궁인 구와다노구가히메를 가까이에 있는 도네리들에게 보이시며, 「내가 이 부인을 사랑하려 해도 황후의 질투로 인해 가까이 하지 못하고 다년간을 지내왔노라.」 <중략> 그 날 구가히메를 하야마치에게 주었다. <중략> 구가히메를 하야마치에게 딸려 구와다로 돌려보냈다. 구가히메는 발병하여 도중에 죽었다. (十六年の秋七月の戊寅の朔に、天皇、宮人桑田玖賀媛を以ちて、近習の舍人等に示せたまひて曰はく、「朕、是の婦女を愛まむと欲へども、皇后の妬みますに苦しび、合すこと能はずして、多年を経たり。<中略>即日(に)玖賀媛を以ちて速待(に)賜ふ。<中略>玖賀媛を以ちて速待(に)副へて、桑田(に)送り遣したまふ。則ち玖賀媛、発病(て)道中(に)死(り)ぬ。)

③22년 봄 정월에 천황이 황후에게 말하기를 「야타노히메미코를 들여 장차 비로 삼겠다」고 하였다. 황후는 듣지 않았다. 이에 천황은 노래를 불러 황후에게 청하였다. <중략> 황후는 끝까지 허락하지 않겠다고 생각하여 잠자코 다시 대답하지 않았다. (二十二年の春正月に、天皇、皇后に語りて曰はく、「八田皇女を納れて妃とせむ」とのたまふ。時に皇后聴したまはず。爰に天皇歌して皇后に乞はして曰はく、<中略>皇后、遂に聴さじと謂し、故、黙して亦答言したまはず。

④30년 가을 9월 乙卯朔 乙丑(11일)에 황후가 기노쿠니에 놀러갔다 구마노미사키에 이르러 그 곳의 미즈나가시와를 따가지고 돌아왔다. 천황은 황후가 없는 틈을 타, 야타

노히메미코를 궁중에 들였다. 황후는 나니와의 나루에서 천황이 야타노히메미코와 결혼하셨다는 말을 듣고 크게 화를 냈다. 가지고 온 미즈나가시와를 바다에 던지고 상륙하지 않았다. <중략> 황후는 오오츠에 목지 않고 다시 돌아와 강을 거슬러 아마시로에서 배를 돌려 야마토로 향하였다. 다음날 천황이 도네리 도리야마를 보내 황후가 돌아오라고 하였다. <중략> 황후는 돌아오지 않고 계속 갔다. <중략> 다시 아마시로로 돌아와 궁궐을 츠츠키노오카의 남쪽에 짓고 살았다.(三十年の秋九月の乙卯の朔して乙丑に、皇后、紀國に遊行でまて熊野岬に到り、即ち其の処の御綱葉を取りて還ります。是の日に、天皇、皇后の不在を伺ひて、八田皇女を娶して、宮中に納れたまふ。時に皇后、難波の濱に到り、天皇、八田皇女を合しつと聞しめして、大きに恨みたまふ。則ち其の採れる御綱葉を海に投げて、著岸りたまはず。<中略>時に皇后、大津に泊りたまはずして、更に引きて江を浜り、山背より廻りて倭に向かひたまふ。明日に、天皇、舍人鳥山を遣はして、皇后を還さしめむとしたまひ、<中略>皇后、還りたまはずして、猶し行てます。<中略>更に山背に還りまし、宮室を筒城岡の南に興てて居します。)

⑤겨울 10월 1일 마토노오미의 선조 구치모치노오미를 보내 황후를 불렀다. <중략>황후는 이르기를 「너의 오라비에게 말하여 속히 돌아가게 하라. 나는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였다. (冬十月の甲新の朔に、的臣が祖口持臣を遣して、皇后を喚したまふ。<中略>時に皇后、謂りて曰はく、「汝が兄に告げて、速く還らしめよ。吾は遂に返らじ」とのたまふ。)

⑥겨울 11월 7일 <중략> 다음날 천황은 츠츠키노미야에 들러 황후를 불렀다. 황후는 와보지도 않았다. <중략> 황후는 사람을 시켜 말하기를 「폐하는 야타노히메미코를 들여 비로 삼으셨습니다. 그 히메미코와 함께 황후노릇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라고 하시고 결국 와보지도 않았다. 천황은 황후가 크게 노여워하는 것을 한탄하시면서도 여전히 황후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셨다. (冬十一月の甲寅の朔して庚申に、<中略>明日に乗輿、筒城宮に詣りまして、皇后を喚したまふ。皇后、参見えたまはず。<中略>時に皇后、奏しめて言したまはく、「陛下、八田皇女を納れて妃としたまふ。其れ、皇女に副ひて后為らまく欲せず」とまをしたまひ、遂に奉見えたまはず。乃ち車駕、宮に還りたまふ。天皇、是に皇后の大きに忿りたまふことを恨みたまへども、而も猶し恋ひ思ふこと有します。)

⑦35년 여름 6월에 황후 이와노히메노미코토 츠츠키노미야에서 돌아가셨다.(三十五年の夏六月に、皇后磐之媛命、筒城宮に薨ります。)

⑧37년 겨울 11월 12일에 황후를 나라야마에 장사지냈다.(三十七年の冬十一月の甲戌の朔して乙酉に、皇后を那羅山に葬りまつる。)

역시 『古事記』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인용 ①의 『日本書紀』 계보부도 이와노히메가 리츄, 한제, 인교천황의 어머니임을 전한다.

이어 이와노히메를 만날 수 있는 것은 닌토쿠(仁徳) 16년의 기록 인용 ②의 구와타의 구가히메 이야기에서이다. 이 이야기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古事記』에는 없는 이야기이다. 닌토쿠는 도네리들을 불러 놓고 이와노히메의 질투로 인해 구가히메와 결혼하고 싶어도 결혼할 수 없어 오랫동안 세월만 보내고 말았는데 더 이상 이를 방지할

수 없다며 하야마치(速待)에게 구가히메를 주어 버린다. 그러나 어거지로 하야마치에게 팔려 보내진 구가히메는 구와타(桑田)로 가던 중에 병이 나서 죽고 만다.

인용 ③에는 야타노히메미코와의 결혼을 허락해 달라는 닌토쿠의 요구에 끝까지 침묵으로 일관하는 이와노히메의 모습이 엿보인다. 『古事記』의 기록과 마찬가지로 인용 ④에서 닌토쿠는 기노쿠니에 출타 중이던 이와노히메의 부채를 틈타 야타노히메미코와 결혼을 하는데 이 사실을 들은 이와노히메는 닌토쿠를 크게 원망하며 환궁하지 않고 야마시로로 간다. 이에 닌토쿠는 사자를 보내어 이와노히메를 데려오려 하지만 이와노히메는 역시 닌토쿠가 보낸 사자의 말에 응하지 않은 채 야마시로에 머문다(⑤). 결국에는 닌토쿠까지 몸소 이와노히메를 찾아가 환궁할 것을 권하지만 자신은 야타노히메미코와 나란히 황후가 될 생각은 없다며 천황을 만나주지도 않는다(⑥). 이와노히메는 결국 끝까지 환궁하지 않은 채 야마시로의 츠츠키노미야에서 죽어(⑦) 나라야마에 묻힌다(⑧).

이상과 같이 닌토쿠가 使者를 보내고 자신이 직접 이와노히메가 있는 츠츠키노미야까지 찾아가 화해를 요구하는 부분까지의 이야기 전개는 『古事記』 『日本書紀』가 거의 일치한다. 그런데 이야기의 종말부에서 닌토쿠와 이와노히메와의 사이에 화해가 성립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 『古事記』 『日本書紀』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결말의 결과에 의해 그 후의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야기는 크게 달라지게 된다. 즉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이는 『古事記』의 경우, 이와노히메는 어느새 궁궐로 돌아와 앞서 본 인용 ④와 같이 메토리노오오키미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하고 있다. 반면에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는 두 번 다시 궁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야마시로에서 죽어 간다. 즉 『日本書紀』의 경우 메토리노오오키미 이야기의 주체는 이와노히메가 아니라 야타노히메미코로 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万葉集』에는 이와노히메의 작품으로 다음과 같은 노래가 실려 있다.

황후 이와노히메가 천황을 사모하여 지은 노래 4수(磐姫皇后、天皇を思ひて作らす歌四首)

85 그 분이 출타하신 지도 제법 일수가 지났는데 아직 돌아오시지 않는다. 산을 헤쳐 밟고 마중을 갈까. 아니면 이대로 가만히 계속 가다릴까.(君が行き 日長くなりぬ 山尋ね 迎へか行かむ 待ちにか待たむ)

86 이렇게까지 그리워 하지만 말고 차라리 마중 나가 험한 산바위를 베개 삼아 죽어 버리는 것이 낫으리.(かくばかり 恋ひつつあらずは 高山の 岩根しまきて 死なましものを)

87 역시 이대로 언제까지나 그 분을 기다리자. 길게 일렁이는 이 검은 머리가 백발이 될 때까지라도.(ありつつも 君をば待たむ うちなびく 我が黒髪に 霜の置くまでに)

88 가을 논의 벼이삭 위에 가득한 아침 안개는 아니지만 이 사랑이 언제쯤이면 사라지는 걸까. 이 안개처럼 가슴속의 사랑은 좀처럼 개일 줄을 모르는구나. (秋の田の穂の上に霧らふ 朝霞 いつへの方に 我が恋止まむ)

어느 책의 노래에 말하길(或本の歌に曰く)

89 여기서 가만히 밤새 그 분을 기다려야겠다. 이 검은 머리에 설령 서리가 내릴지라도.(居明かして 君をば待たむ ぬばたまの 我が黒髪に 霜は降るとも)

종래에 위의 이와노히메의 노래에 관해서는 작품의 해석과 4수의 구성의 문제 등으로 표현에 관한 문제와 작품의 성립 배경, 성립 시기 및 실제 작자의 추정에 관한 문제 등 성립론, 편찬론에 관한 문제가 논의되어 왔다²⁾. 『万葉集』 2권의 권두를 장식하는 이 이와노히메의 노래 4수가 닌토쿠시대의 작품이 아니라 훨씬 후대에 이와노히메에게 가탁된 것이라는 견해³⁾도 있지만 가탁 이후의 향유자들에게는 이와노히메의 노래로 믿어져 왔던 만큼 역시 이야기상으로는 이와노히메의 작품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万葉集』에 보이는 이 이와노히메에 대해 대부분의 주석서들은 야타노히메미코를 후궁으로 맞이하는 문제로 천황 닌토쿠와 불화를 일으킨 『古事記』나 『日本書紀』가 전하는 이와노히메와는 달리 「기다리는 여자의 연약함을 절절하게 호소한 정숙한 아내의 모습(待つ女の弱さを切々と訴える貞淑な妻の姿)」 「정숙하고 헌신적이며 정열적이기는 하지만 조신하고 가냘프다(貞淑で献身的で、情熱的ではあるが、つれなく、しおらしい)」 「애정이 깊고 망설이는 여성의 이미지(愛情深く、ためらう女性のイメージ)」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이는 기존의 연구들이 『古事記』 『日本書紀』가 전하는 이와노히메에 대해 「질투의 화신(嫉妬の権化)」 「질투심이 강하고 독선적이며 위압적(嫉み深く独占的で、威圧的)」 「질투심이 강하고 감정적인 타입(嫉妬深く、直情型)」 등으로 해석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대조적이다.

3. 이와노히메像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상대 문헌이 전하는 이와노히메의 이미지에 관해서는 종래에 『古事記』 『日本書紀』에 보이는 이와노히메의 강한 질투를 『万葉集』의 이와노히메의 깊은 애정에서 비롯

2)伊藤博, 稲岡耕二編 「磐姫皇后の歌」 『万葉集を学ぶ』 第二集 有斐閣, 1978 p1-21, 久米常民 「磐姫皇后の歌の史的意義—氏族伝承に関連して—」 『説林』 23, 1974.12, 土橋寛 「“磐姫皇后の歌”の再検討」 『万葉』 122호 1985.8, 北野達 「磐姫皇后歌群と有間皇子自傷歌群—初期万葉歌への一視点—」 『国学院雑誌』 92권 1호 1992.1, 広岡義隆 「磐姫皇后歌群の形成—『万葉集』 卷第二、卷頭歌群の形成と史的背景」 『和歌を歴史から読む』 2002.10 p31~48호.

3)澤瀉久孝 「伝承歌の成立」 『萬葉の作品と時代』 岩波書店, 1941

된 것으로 보아 표리일체의 하나의 이와노히메象이라고 하는 견해와 이와는 달리 오로지 일관되게 천황을 사모하는 『万葉集』의 이와노히메와 강렬하게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를 각각 서로 다른 이미지로 파악하여 두 개의 이와노히메象으로 보는 견해 등이 있어 왔다. 또, 『古事記』 『日本書紀』 『万葉集』가 묘사하고자 한 각각의 이와노히메象을 확인하는 입장도 있는데 여기에는 다시 구체적으로 『万葉集』에 있어서의 이와노히메象을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象의 변용 혹은 발전으로 이해하는 견해⁴⁾와 『万葉集』에서의 이와노히메象을 다양한 이와노히메의 본래의 이야기 중의 하나로 이해하는 견해 등이 있다.

역시 이와노히메 전승은 「記紀」로서가 아니라 『古事記』 『日本書紀』가 각각의 독자적인 작품세계를 구축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는 최근의 성과에 입각하여 재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古事記』 『日本書紀』의 전승의 차이를 인정하는 입장 중에도 그 구체적인 이해에 있어서는 서로 다른 견해의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중에서 이러한 입장의 여러 견해들 중 주목할 만한 몇몇 견해에 대해 살펴보자.

『古事記』의 이와노히메의 경우에도 결코 단순한 사랑만의 문제는 아니었겠지만 사랑을 주제로 한 질투였는데 반해,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의 경우는 사랑은 이차적인 것에 불과하며 신성한 궁궐의 주인이라는 자부심이 그 질투의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듯하다. (古事記のイワノヒメの場合も決して単純な愛だけの問題ではなかったであろうが、愛を主体とする嫉妬であったのに対して、書紀のイワノヒメの場合は、愛は却って二次的なものになり、犯されることのない後宮の主人という自負心が、その嫉妬の首座を占めているように思われる。)

라고 요시이(吉井巖) 씨⁵⁾는 특히 이와노히메의 질투의 질적 차이에 주목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또, 무로타(室田智子) 씨 역시 『古事記』 『日本書紀』의 독자적인 세계를 인정하고 각 작품이 그리는 이와노히메의 질투에 주목하여

이야기 전체의 흐름도 매끄럽고 내용도 연애감정의 질투라는 것에 포인트를 두고 있

4) 「애타게 기다리는 여인의 가련한 변민을 읊은 것. 이하 4수는 실은 이와노히메의 실제작이 아니라 후세 사람들이 新舊가 다양한 노래를 조립하여 번뇌-흥분-반성-탄식의 심정을 한시의 기승전결 구성을 모방하여 배열한 연작으로, 記紀와는 전혀 이질적인 이와노히메象을 만들어 내고 있다. 단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을 이와노히메 자신의 작품으로 향유했으며 4수가 2권 「相聞」의 서두에 놓여져 있는 것은 작자, 작풍상, 이하 이어지는 相聞歌群의 규범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新潮日本古典集成 萬葉集1』 新潮社, 1989)

5) 吉井巖「イワノヒメの物語」(『吉永登先生古希記念 上代文學論集』關西大學國文學會 1975.9) p3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 이야기 앞에 「쿠로히메」 이야기를, 뒤에는 「메토리노오오키미」 이야기를 배치하고 있는 것을 종합해 생각해 보아도 사랑을 테마로 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物語全体の流れもスムーズで、内容も恋愛感情の嫉妬というものにポイントをおいていると思われる。この物語の前に「黒日壳」の物語を、後ろには「女鳥王」の物語を配置していることを考え合わせても、愛をテーマにしていると、いえるのではないかとと思われる。)⁶⁾

라고 『古事記』의 이와노히메 전승은 사랑을 테마로 한 것이고 그녀의 질투도 연애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에 반해 『日本書紀』에 대해서는

황후의 질투라고 하면 그것은 연애 감정의 질투가 아니라 상대방이 야타노히메미코였다는 것에 대한 질투, 즉 서로의 배후에 자리 잡고 있는 호족간의 권력다툼이라고나 할 법한 것이 질투의 밑바닥에 있는 것이 아닐까 한다。(皇后の嫉妬はというと、それは恋愛感情の嫉妬ではなく、相手が八田皇女であったことに対する嫉妬、つまりお互いの後ろにひかえている豪族間の権力争いともいうようなものが、嫉妬の奥底にあるのではないかとと思われるのである。)⁷⁾

순수한 사랑의 감정에서 비롯된 질투가 아니라 황후의 배후 세력간의 권력다툼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한다.

한편, 후지와라(富士原伸弘) 씨는 『古事記』의 이와노히메 이야기에 관해,

이와노히메노미코토는 황후로서가 아니라 격심한 질투를 하면서도 남편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진 여성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리고 그 전승은 이와노히메를 주인공으로 닌토쿠 천황을 둘러싼 여성들의 사랑을 강조한 연애이야기로서, 역시 이상적인 부부애의 형태로 구성된 것(石之日壳命は皇后としてではなく、激しい嫉妬をし、かつ夫に対して深い愛情を持つ一女性として描かれている。そしてその伝承は、石之日壳命を主人公として仁徳天皇をめぐる女性達の愛の姿を強調して描いた恋愛物語として、また理想的な夫婦の愛の形として構成されたもの)⁸⁾

이라 평한다. 아울러 『日本書紀』에 관해서는,

야타노와카이라츠메를 황후로 세우기 위해 절대적인 반대자이자, 죽어 가는 운명의 황후로 다음 황후인 야타노와카이라츠메의 정통성을 보증하는 존재로서만 그려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때문에 질투를 하는 여성의 모습은 한 여성으로서의 감정을 박탈당한

6)室田智子「石之日壳の嫉妬物語—構成から見た原話の推定—」(『甲南女子大学大学院論叢』第10号 1988.1) p8

7)室田智子 전계 논문 6) p8

8)富士原伸弘「古事記にみえる石之日壳皇后像—八田若郎女との比較を中心に—」『日本文学論究』51号 1992.3 p21

무기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이와노히메 전승은 『日本書紀』가 구상하는 正史로서의 황후 전승의 한 과정으로 편입되어 버렸다.(八田若郎女立後の為に絶對的な拒否者として、また死に行く運命の皇后として次の皇后である八田若郎女の正統性を保証する存在としてのみ描かれているといえる。故に嫉妬をする女性の姿は一女性としての感情を剥奪された無機的なものに変質し、石之日壳伝承は紀の構想する正史としての皇后伝承の一過程として組み込まれてしまった)⁹⁾

고 주장한다.

이상, 『古事記』 『日本書紀』의 전승에 보이는 상이점에 주목한 각각의 이와노히메像에 대한 몇 개의 대표적 언설에 대해 살펴보았다. 논자에 따라 다소 그 표현에 차이는 있지만 이들 주장을 요약해 말하자면 『古事記』의 이와노히메는 「사랑에 사는 여성」의 모습을,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는 「사랑보다는 황후의 자리에 연연하는 모습」을 각각 보고 있는 듯 하다.

한편 그렇다면 먼저 이와 같이 『古事記』 『日本書紀』에 있어서의 이와노히메像이 서로 다른 원인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이러한 의문에 대한 해답으로 주장된 지금까지의 언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전승 기반의 차이

- a. 가즈라기(葛城)씨 전승설—折口信夫, 土橋寛, 吉井巖, 菅野雅雄
- b. 와니(和迩) 씨 전승설—寺川真知夫
- c. 『古事記』 : 가즈라기(葛城)씨 전승, 『日本書紀』 : 와니(和迩)씨 전승설—尾崎富義

② 당시의 세력관계를 반영한 씨족전승 뿐만은 아니다—富士原伸弘

우선 종래의 언설들의 대부분이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像의 괴리를 서로 다른 전승기반의 차이에서 찾고 있다는 공통점을 먼저 지적할 수 있다. 그러나 위의 정리에서도 일목요연하게 알 수 있는 것처럼 각각의 전승기반의 상정이 연구자에 따라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어 일치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황이다.

이상과 같이 『古事記』 『日本書紀』에 보이는 이와노히메像을 둘러싸고 있는 전승의 배경, 전승의 중심 내용 등에 관한 여러 학자들의 많은 언설이 있지만 이와노히메 이야기를 「질투 이야기」 내지는 「사랑 이야기」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점에서는 거의 일치한다고 하겠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을 찾는다면 예를 들어 소쿠라(曾倉) 씨의

어디까지나 중심은 질투하는 여자 이와노히메이지 질투를 받는 남자는 아니다. 천황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만 그러한 질투를 하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천황의 인자한 마음이 나타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부산물에 지나지 않는다.(あくまでも中心は嫉

9) 富士原伸弘 전계 논문 8) p21

妬する女イワノヒメであり、嫉妬される男ではない。天皇の価値を高めるためだけにあのような嫉妬をしているとは考えられない。天皇の仁慈の心が示されても、それは副産物にすぎない。)10)

와 같은 견해나 오자키(尾崎) 씨의

천황은 어디까지나 부차적인 존재일 수밖에 없으며, 몇 개의 아내맞이도 이와노히메의 질투를 이야기하는 설정에 지나지 않는다. 야마베노오오다테의 처형에 즈음해서도 처단을 내리는 것은 천황이 아니라 황후 자신이었으며 주체가 황후인 이상 메토리노오오키미 사건에 황후가 재등장하는 것도 당연한 흐름일 것이다。(天皇はいかにもワキ的存在でしかなく、いくつかの妻まぎも石之日売の嫉妬を語る道具立てにすぎない。先掲の山部大楯の処刑に際しても、処断を下すのは、天皇ではなく、太后自身であって、主体が太后である以上、女鳥王事件に太后が再度登場するのも当然の成り行きであろう。)11)

라는 견해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을 이와노히메로 보고, 천황을 조역으로 밖에 보고 있지 않는 점도 기존의 많은 설들의 공통된 점으로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요시이(吉井巖)12) 씨는

古事記의 이와노히메 이야기를 여주인공 이와노히메에게만 초점을 맞춰 질투하는 여자의 이야기로, 이것을 너무 문예적으로만 본 것은 아닐까 하는 반성에 사로잡힌다. 먼저 닌토쿠 천황을 주인공으로 한 시점에서 검토되었어야 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古事記의 이와노히메物語を、女主人公イワノヒメにのみ焦点をあてて、嫉妬する女の物語として、文藝的にこれを見すぎではいなかったか、という反省に駆られる。それはまず仁徳天皇を主人公としての視点から検討されるべきではなかったか。)

라는 경청할만한 지적을 하고 있다. 확실히 이와노히메를 이야기할 때에 이와노히메도 닌토쿠 천황에게 「반쳐진」 여성 중의 한 사람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 전승과 이와노히메像

그런데 필자는 이 외에도 재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적어도 하나 더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이와노히메 이야기를 「질투 이야기(嫉妬物語)」 「사랑 이야기(恋物語)」로 보는

10) 曾倉岑 「イワノヒメの嫉妬」 『日本文學研究資料叢書古事記・日本書紀』有精堂 1975.4 p192

11) 尾崎富義 「石之日賣傳承の位相一記紀の比較を通して」 『古事記研究大系 8 古事記の文芸性』1993.9 p237

12) 吉井巖 전계 논문 5) p4

견해이다. 이와 같은 종래의 견해로는 메토리노오오키미 이야기에 등장하는 이와노히메의 모습과 질투심으로 가득한 바로 직전의 그녀의 모습에 엇보이는 위화감을 다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가 남는다. 그리고 앞서도 본 것과 같이 『古事記』 『日本書紀』 간의 차이는 종래에 그 기반이 되고 있는 씨족전승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설명되어 왔으나 연구자에 따라서 각각 서로 다른 전승 기반을 상정하고 있는 등 여전히 재고의 여지가 있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과연 『古事記』가 이와노히메를 통해 말하려 했던 것은 무엇일까.

일반적으로 이와노히메의 남편 닌토쿠 천황은 유교적인 聖帝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왜 닌토쿠 천황인가 하는 점에 대해서는 더욱 검토되어야 할 문제가 있겠지만,

상·중·하권으로 3권으로 나누어져 있는 『古事記』 중에서 닌토쿠 천황이 하권의 서두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아 과연 인간의 시대의 시작을 나타내는 천황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그와 같은 천황이 전대의 神人적인 천황의 모습을 떠나 유교적인 聖天子로서의 새로운 聖人像 중에서 일본이라는 국가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사회를 의식하여 국가의 정통적 지배자를 보증하는 천황傳의 형성에 관계한 것으로 생각된다.(上·中·下卷と三卷に分けられる『古事記』のなかで仁徳天皇が下卷の冒頭におかれていることから、まさに人の世のはじまりを示す天皇とみなすことができるだろう。そのような天皇が前代の神人的な天皇像を離れて、儒教的聖天子としての新たな聖人像の中で、日本の国家のみならず、東アジア社会を意識し、国家の正統な支配者を保証する天皇傳の形成にかかわったのだと思われる)

라고 하며 이 문제를 『古事記』와의 관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스가이(須貝)¹³⁾ 씨의 견해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니시미야(西宮一民) 씨는 『古事記』 중·하권의 구별은 천황의 존재양식의 차이에 의한 것이라고 하여 중권의 천황은 「神道的天皇像」, 下卷의 천황은 「儒教的天皇像」이라고 설명한다. 이 밖에도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지적되고 있는 것처럼 하권에 있어서는 유교적 사교나 그것을 바탕으로 한 기술 등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다.¹⁴⁾

이와 같이 만일 『古事記』가 하권의 서두에 닌토쿠 천황을 통해 「儒教的天皇像」을 그리고자 했다면 그 황후에게도 그에 걸맞는 역할이 지워져 있다고 보아 마땅하지 않을까. 요컨대 『古事記』는 닌토쿠를 통해서만 바람직한 「天皇像」을 그리고 그 황후 이와노히메를 통해서만 이상적인 황후의 모습 즉, 「皇后像」을 그리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와노히메 전승의 전개과정을 잘 살펴보면 제2의 使者로 와니노오미구치코(和迹臣口子, 『日本書紀』는 구치모치노오미(口持臣))를 파견하는 부분까지는 『古

13) 須貝美香 「仁徳天皇聖帝傳承の形成—漢代儒教思想との關連から」 『上代文學』 上代文學學會 1992.11 p93

14) 예를 들어 주 13) 須貝美香의 전개 논문 등

事記』 『日本書紀』의 이야기 전개가 거의 동일하다.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像이 가장 현저하게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야타노와카이라츠메를 둘러싼 이야기의 결말부인데, 그 이후에 이어지는 메토리노오오키미 이야기에 보이는 차이도 바로 이 결말부의 결과에 의한 것이 되고 있다.

표현상으로 보면 『古事記』 『日本書紀』간의 차이는 이 밖에도 많이 보이지만 특히 이야기의 전개과정에 주목하여, 양자간의 주된 차이를 열거해 보면 대체로 다음의 6가지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 1.야타노와카이라츠메 (八田若郎)(『日本書紀』는 야타노히메미코(八田皇女))를 황후로 삼고자 하는 천황과 황후의 격렬한 대립과 답가를 전하지 않는다.
- 2.닌토쿠(仁德)와 야타노와카이라츠메와의 사랑이야기와 그 답가를 전한다.
- 3.使者 구치코(口子), 일본서기는 구치모치노오미(口持臣)가 비에 젖어 뜰에 엎드려 있는 모습을 보고 그의 여동생 구치히메(口日売) (『日本書紀』는 구니요리히메(国依媛))는 슬픔의 노래를 불러 이와노히메에게 그 사정을 고하지만 그것을 들은 이와노히메의 심정을 직접 말한 기술이 없다.
- 4.누리노미(奴理能美)와 누리노미의 「삼색의 진귀한 벌레(三色の虫)」를 이야기하여 천황의 행차를 재촉한다.
- 5.천황의 츠츠키노미야(筒城宮) 행차에 대한 이와노히메의 대응에 대해서는 아무런 기술도 하지 않는다.
- 6.메토리노오오키미(女鳥王) 이야기에 등장→천황과 화해한 이와노히메의 모습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보면 『古事記』와 『日本書紀』의 전승 중에 특히 눈에 띄는 차이점으로 『古事記』가 누리노미(奴理能美)를 등장시키고 있는데 종래의 연구는 이와노히메의 「질투 이야기」에 너무 구애된 탓인지 이러한 차이점에는 거의 주목하고 있지 않다. 『古事記』 『日本書紀』의 이와노히메像에 보이는 차이를 질투에 있어서의 차이와 이야기 전개상의 차이에 주목해 논하고 있는 요시이¹⁵⁾ 씨에 의해

야타노와카이라츠메에 관한 이야기에서는 ……누리노미를 등장시킨 점은 古事記의 새로운 고안이었지만, …… 古事記의 이야기는 ……본래의 줄거리로써 격렬하게 질투하는 이와노히메를 닌토쿠 천황이 달래서 화해하는 내용이 되어 있다.(…八田若郎女にかかわる話では、…奴理能美を登場させたところは新しい古事記の工夫であろうが、…古事記の話は…本筋として激しい嫉妬のイワヒメを仁徳天皇が和めて和解する内容になっている)

라고만 언급되고 있는 정도이다.

그러나 이 부분의 차이가 결국 『古事記』 처럼 이와노히메가 황후로서 이후의 이야기 속에 계속 남느냐 아니면 『日本書紀』 처럼 이와노히메는 죽고 야타노와카이라츠메

15)吉井巖 전계 논문 5) p8~9

가 황후가 되어 이후의 이야기에 등장하느냐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이 누리노미와 그의 진귀한 벌레 이야기인 만큼 간과되어 왔던 이 부분에 대한 재조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도 「누리노미를 등장시킨 점은 古事記의 새로운 고안(奴理能美を登場させたところは新しい古事記の工夫)」일 것이라고 하는 요시이 씨의 지적에는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요시이 씨의 지적처럼 누리노미의 등장이 「古事記의 새로운 고안(古事記の新しい工夫)」이라고 한다면 당연히 여기에는 편자의 의도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만 할 것이다.

『古事記』의 편자가 누리노미와 「삼색의 기이한 벌레(三色の奇しき虫)」를 등장시킴으로써 기대한 효과는 어떤 것이었을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이와노히메가 아마시로를 방문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공해 줌과 동시에 천황의 행차를 재촉하여 이야기를 천황 닌토쿠와 황후 이와노히메의 화해로 이끄는 『古事記』만의 독특한 「장치」로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古事記』의 使者는 『日本書紀』의 使者와 같이 사명을 완수하지 못하고 실패했다고 아뢰는 것이 아니라 누리노미가 기르고 있는 진귀한 벌레 이야기를 전함으로써 천황과 황후의 면목을 손상시키는 일 없이 화해와 화합의 장으로 이끌고 있는 것이다. 「새로운 古事記의 고안(新しい古事記の工夫)」의 의도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아울러 나아가 『古事記』는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이상적인 신하로서의 모습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면 『古事記』는 환궁한 이와노히메를 메토리노오오키미와 하야부사와 케노미코(隼別皇子) 이야기에서 다시 등장시켜 메토리노오오키미의 옥팔찌를 취한 오오다테노무라지(大楯連)를 향해 다음과 같이

천황은 메토리노오오키미들을 불경함으로 인해 물리치셨다. 이는 하나도 이상할 것이 없다. 그런데 남편이란 놈이 자기 주인이 손에 하고 있던 옥팔찌를 막 죽어 아직 살갓도 따듯할 때에 빼앗아 제 아내에게 주다니 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사형에 처하셨다.(其の王等、礼無きに因りて退け賜ひつ。是は異しき事無けのみ。夫の奴や、己が君の御手に纏ける玉鈕を、膚も熾けきに剥ぎ持ち来て、即ち己が妻に与えつ)とのりたまひて、乃ち死刑を給ひき。)16)

엄하게 꾸짖으며 즉시 사형에 처하고 있다.

같은 일화를 전하고 있는 『日本書紀』의 경우에는 이와노히메가 아니라 야타노히메미코가 황후로 등장하는데 야타노히메미코의 간청으로 천황은 메토리노오오키미가 몸

16) 『古事記』 下卷 仁徳天皇조.

에 지니고 있던 물건들은 몰수하지 말라는 명령을 내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명령을 어기고 아가노코(阿俄能胡)는 메토리노오오키미의 팔찌와 발찌를 빼앗아 자신의 아내에게 주었다. 천황이 이 사실을 알고 아가노코를 죽이려 하자 아가노코는 대신 자신의 영지를 헌상할 테니 사형을 면하게 해 달라고 청원하는데, 천황은 이를 받아들여 그의 토지를 몰수하고 사형을 면해 주었다고 기록한다. 즉, 사유지를 몰수하는 대신 사형을 면해 준 『日本書紀』는 아가노코의 죄를 단순한 절도정도로 생각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오다테노무라지에 대한 『古事記』의 단호한 사형집행에서도 절도죄가 아니라 신하로서의 도의적인 문제를 엄하게 묻고 있는 『古事記』의 일관된 태도를 엿볼 수 있다고 하겠다.

5. 맺음말

이와노히메를 둘러싼 이야기는 지금까지 씨족전승으로써 논해져 왔으며 이와 같은 시점도 물론 중요할 것이다. 그러나 역시 『古事記』 『日本書紀』의 편자는 전설이나 씨족전승을 각각 그 편찬의도에 맞춰 수정하여 정착시키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이 이야기를 씨족 전승으로만 설명하고자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된다.

『古事記』가 이야기하는 내용과 『古事記』를 만들어낸 사람들과의 관계를 묻지 않으면 안 되고 최근 그런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¹⁷⁾. 그 결과 『古事記』가 편찬된 책이라는 사실이 재확인된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위해 어떤 내용을 어떤 형태로 만들어내었고 수용되었는가에 대한 고찰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요구와 필요를 『古事記』 『日本書紀』가 전하는 두 개의 이와노히메象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이를 통해 『古事記』의 이와노히메가 어떻게 그려져 있으며 그것이 「記紀」로서가 아니라 『古事記』라는 독자적인 작품세계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古事記』에 있어서의 이와노히메에 관련된 이야기는 종래의 많은 언설과 같이 이와노히메를 주인공으로 하는 「질투 이야기」나 「사랑 이야기」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닌토쿠 천황을 주인공으로 하는 이야기 중에 「닌토쿠 천황의 황후 이와노히메」에 관한 이야기로 보아야 할 것이다.

17)清水義夫 「『古事記』의 形成」 『東アジアの古代文化』 120号, 2004. 夏, 神野志隆光 「文字 / 表記 / テキスト-書くことが成り立たせた古代『古事記』-文字テキストとしての水準」 47-4 『国文学』 681, p100~106, 2002. 3, 「国文学の方法と歴史研究-『古事記』의 「古代」 / 『日本書紀』의 「歴史」」 『GYROS』, p162~173, 2004.6, 「記紀を読むことのリアリティー」 『読むことの力』, 146~162, 2004. 3, 그 밖에 학술지 특집으로 「特集 古事記・日本書紀-比較〈作品としての記紀の相違〉」 『国文学』 732, 2006.1 등이 있다.

일본문학사에서는 비슷한 시기에 성립된 두 문헌의 기본적 성격에 관해 『日本書紀』는 국내적으로는 물론 대외적으로도 야마토 조정의 권위를 과시하고자 하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그러한 입장에서 내외의 광범위한 자료를 수집하여 한문체의 대륙풍 문장을 구사함으로써 내용, 형식, 표현면에서 권위 있는 역사서로 편찬하고자 노력함으로써 현재와 같은 형태의 문헌으로 성립되었다고 한다. 이에 반해 『古事記』는 고대의 전승을 중심으로 편찬해 굳이 한문체 문장으로 권위를 부여하려 하지 않고 전승 그 자체를 살리고자 한 편찬 의도에 따라 성립되었으며 이 점에서 두 문헌의 성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이렇게 보면 적어도 본고에서 살펴본 『古事記』 이와노 히메 전승은 오히려 『日本書紀』의 그것보다 더 철저하게 군신의 도의와 체면을 중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 『古事記』 『日本書紀』가 어떤 성격의 문헌인지에 대한 보다 전반적인 차원에서 재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参考文献】

<전집류>

- 『新潮日本古典集成 万葉集』(1989) 新潮社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万葉集』(1994) 小学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古事記』(1997) 小学館
『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日本書紀』(1996) 小学館

<단행본>

- 尾崎富義(1993) 「石之日売の伝承の位相—記紀の比較を通して—」 『古事記研究大系 8 古事記の文芸性』, 高科書店
川上順子(1995) 「古事記の中の太后像」 『古事記と女性祭祀伝承』, 高科書店
曾倉岑(1975) 「イワノヒメの嫉妬」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古事記・日本書紀』, 有精堂
都倉義孝(1994) 「石之日売の嫉妬物語を読む—歌と物語の交渉—」 『古事記研究大系9 古事記の歌』, 高科書店
細川純子(1994) 「妬む女—嫉妬の古代の意味—」 『古代文学講座4 人生と恋』, 勉誠社
溝口睦子(1975) 「仁徳天皇の後妃に関する説話について—その記紀における比較—」 『日本文学研究資料叢書 古事記・日本書紀』, 有精堂
吉井巖(1975.9) 「イワノヒメの物語」 『吉永登先生古希記念上代文学論集』, 関西大学国文学会

<논문>

- 青木周平(1989) 「記紀における歌謡と説話—<イワノヒメの物語>を事例として—」 『上代文学』 62号, 上代文学学会
阿部寛子(1977.9) 「石之日売の物語—一個の誕生—」 『調布学園女子短期大学紀要』 第10号
逸見敦子(1981.3) 「古事記—石之日売像—」 『昭和学院国語国文』 第14号
伊藤博(1959.2) 「磐姫皇后の歌—万葉集卷二相聞の性格—」 『国語国文』 28卷2号(294号)
榎本福寿(1988.3) 「『古事記』の所伝のなりたちと漢籍—仁徳天皇条の所伝をめぐる、その(二)—」 『仏教大学大学院紀要』 第10号
川上富吉(1970.3) 「磐姫皇后伝承像について—記紀と万葉における相違—」 『大妻国文』 1号
岸正尚(1979.4) 「磐姫の嫉妬にまつわる歌物語(1)」 『並木の里』 17号
久米常民(1974.12) 「磐姫皇后の歌の史的意義—氏族伝承に関連して—」 『説林』 23号
須貝美香(1992.11) 「仁徳天皇聖帝伝承の形成—漢代儒教思想との関連から—」 『上代文学』 69号, 上代文学学会
戸谷高明(1959) 「剥ぎとられた玉釧—古事記の表現について—」 『国文学研究』 19号
寺川真知夫(1988.1) 「石之日売の悲しみ」 『古事記年報』 第31号
富士原伸弘(1992.3) 「古事記にみえる石之日売皇后像—八田若郎女との比較を中心に—」 『日本文学論究』 51号
室田智子(1988.1) 「石之日売の嫉妬物語—構成から見た原話の推定—」 『甲南女子大学大学院論叢』 第10号
山崎正之(1987.10) 「仁徳「聖帝伝承」の位相」 『二松学舎創立百十周年記念論文集』

要 旨

第十六代仁徳天皇の皇后イワノヒメは、葛城之曾都毘古の娘で、履中天皇、反正天皇、允恭天皇の母と言われており、『古事記』『日本書紀』『万葉集』いずれもこのイワノヒメを主人公とする伝承を伝える。『古事記』『日本書紀』の伝えるイワノヒメは嫉妬深い皇后として登場しているのに対し、『万葉集』に見えるイワノヒメは天皇への思いを歌ったものであるとされ、従来この『古事記』・『日本書紀』と『万葉集』の二つのイワノヒメ象についての考察は多く行われてきた。しかし『古事記』と『日本書紀』の伝えるイワノヒメ象に認められる相違についてはあまり論じられてきていない。と同時にイワノヒメ象をめぐる正反対の解釈が為されているのが現状である。『古事記』『日本書紀』の二つのイワノヒメ象の比較考察は『古事記』『日本書紀』それぞれのもつ独自の作品世界への理解のために重要な手がかりを与えてくれることと考へ、本稿は『古事記』『日本書紀』の伝える二つのイワノヒメ象への比較検討を通し、『古事記』独自の作品世界に迫ろうと試みたものである。

本稿ではとくに『古事記』『日本書紀』に見えるイワノヒメに関する記事の中で、両者に共通して伝えられている話でもあり、また大きく食い違っている話でもある八田若郎女をめぐる話を中心に見てみた。

その結果、『古事記』『日本書紀』の編者は、伝説や氏族伝承をそれぞれの編纂意図に合わせて修正し、定着させていることを考へ合わせると、諸説共通して従来はこの物語の主人公をイワノヒメとみ、天皇をわき役としか見ていなかった点や従来のように氏族伝承として論じるような視点だけではやはり、この物語を説明しきれない限界がある事を指摘した。よって、私は『古事記』におけるイワノヒメに関わる物語は、従来のように、イワノヒメを主人公とする「嫉妬物語」や「恋物語」ではなく、あくまでも仁徳天皇を主人公とする物語の中の「仁徳天皇の皇后イワノヒメ」に関わる物語と見直されるべきであろうと考へる。

キーワード：イワノヒメ、八田若郎女、仁徳天皇、女鳥王、
古代の女性、嫉妬、古事記、日本書紀

투 고 : 2007.11.30
1차 심사 : 2007.12.08
2차 심사 : 2007.12.29

住 所 : (300 - 190) 대전시 동구 흥도동 3-18 2층

電 話 : 042-622-6158 019-9233-6667

e-mail : bbnkpark@hanmail.net